

●●● 고영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양계산업에 실익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설 때이다



농산물 자유 무역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농가들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양계분야는 일정기간 HPAI로 닭고기 수입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런 일이지만 수입 물꼬가 터지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업계에 팽배해져 있다. 이런 시기에 양계산물 수급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고영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위원장(농협중앙회 상무)을 만나 양계산물 수급조절 사업추진 현황과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갖고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고영곤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미 오클라호마대 농업경제학 박사
전농협중앙회 조사부장
전농협중앙회 비서실장
전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현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

구구데이, 계란 TV다큐멘터리 소비홍보 실시

올해 들어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급속도로 위축된 국내 양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육계수매와 종란과 병아리의 폐기, 종계의 도태 등을 병행하여 생산 감축을

실시하였으며,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소비홍보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홍보 이벤트를 전개하여 양계산물의 안전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소비를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올 하반기 국내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 감

소로 수급조절 필요시에는 생산조절 등 각종사업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비홍보 활동도 전개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9월 9일 구구데이를 맞이하여 본 행사가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란과 닭고기를 먹는 '닭의날'로서의 정례행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농협지역본부의 주관 하에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또한 국내 양계산물 유통 및 소비구조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계산물의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종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계란의 홍보를 위해선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소비자들의 심리에 잠재되어 있는 계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교정하고 전 국민의 계란 소비를 확대 할 계획이다.

양계농가 · 양계농협 · 농협중앙회 협력하여 고품질 양계산물 공급해야

자유무역시대에 양계농가가 농협과 협력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우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수지맞는 경영을 유지하여야 한다. 농협에서는 양계농가 경영개선을 위하여 산학연과 연계한 '농협 양계 컨설팅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1농가에 21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양계경영을 위한 기장기록과 브랜드 양계산물 생산농가 등 양계 선도조합원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산란계와 육계농가를 선정하여 가축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농가들이 생산한 양계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자신있게 선보이는 것이다. 그간 농협에서는 고품질 양계산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양계농협에 계란 냉장차량과 유통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란과 닭고기의 등급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계

란 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집하장 납품 농가의 생산계란과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협계란에 대해서는 매월 수거하여 품질과 항생제 잔류검사 실시 등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축산물과 유기축산물 생산의 터전 마련

농협에서는 향후 축산업은 환경과의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유기축산 시범사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양계부문의 유기축산 시범사육은 농협 안성목장에 산란계 2천수와 육계 6천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산된 계란은 8월 19일에 개장한 전문화된 '브랜드축산물 판매점(서울 문정동 소재)'을 통해 '농협웰빙유정란'으로 우선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방역체계구축과 자조활동자금 적극 활용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의 교훈에서 알게 되었듯이 모든 축산은 앞으로 질병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가금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양계농가에서도 예방위주의 방역체계를 갖추고, 건강한 닭을 사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또한 양계산업은 수입 닭고기 등과 경쟁뿐만 아니라, 자조활동자금의 도입으로 타 축산물과의 소비확대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양계농가들도 소비자와 시장 지향의 고품질 안전 양계산물의 생산에 전념함으로써 소비자가 기꺼이 계란과 닭고기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농협중앙회 또한 양계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양계농가의 실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정부 등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정책 대안을 발굴 반영토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정리 | 김장준 과장) **양계**